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28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93)	봉헌 (332)	성체 (498)	파견 (144)
---------	----------	----------	----------	----------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송 | 시편 104(103), 17과 24과. 29-30. 31과 34(© 30 참조)

제2독서 | 1코린 12,3-7. 12-13<또는 로마 8,8-17>

부속가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돌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요한 20,19-23<또는 요한 14,15-16,23-26>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2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6/9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6/16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6/23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85	\$95	\$9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1	이 요한/ 이 마틸다	7/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8	유 요한/ 유 마리아	7/13	김 마론/ 김 헬레나
6/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7/20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2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7/27	손 아놀드/ 손 쟈마
6/29	김 요아킴/ 고 안나	8/3	이 글라라/ 장 글라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나의 신앙의 전환점

-임두빈 안드레아 | 생활성가 가수-

어머니께서는 쌍둥이 미숙아를 목숨을 걸고 낳으셨고, 전 서울대학교병원 인큐베이터에서 홀로 아남았습니다.

저는 삼 남매 중 막내입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보약을 입에 달고 살았고, 막내다 보니 어머니 껍딱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하셨는데 매일 새벽 미사 참례를 해야 했고, 저녁에는 묵주기도 5단과 가톨릭기도서 전체 그리고 성경 말씀 1장을 읽어야 했습니다. 행여 반항이라도 하는 날에는 회초리는 기본이요, 밥도 용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정의 평화요, 세계의 평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어머니께서는 각자의 기도 생활에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 중에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994년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소 충격적인 김 일성의 사망 뉴스를 접하고 있을 때 저는 깊은 한숨과 절망감을 안고 병실에 누워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찾아오는 통증과 앞으로 닥쳐올 수술의 공포감보다 더 힘든 것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 이었습니다. 1년 동안 지옥 같았던 8차례의 수술이 이행되었고, 평소 운동으로 다져졌던 건장한 몸은 병간호하시느라 피골이 상접하신 어머니가 업고 옮길 정도로 앙상하고 초라한 몸이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7 월 4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원회의는 오늘(6 월 9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목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공동체 모임: 매주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다음 모임은 6 월 21 일 입니다.

다음 주는 Father's Day 입니다.

고생하시는 모든 아버지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Father 이신 하느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저의 처지에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았지만, 철없는 막내아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 지루한 병원 생활도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니다. 어릴 적부터 해왔던 신앙교육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위안도 받았습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보며 반성도 하게 되니 죽어있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서 소박한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평생 목발을 짚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참기 힘든 고통과 흉터는 남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걸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제 고통의 흔적 속에 하느님께서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소소하고 평범한,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시련을 통해 저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 5,16-18)